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3월 27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수 산 과	담 당 자	· 수산지도팀장 송병훈 ☎ 440-4861 · 담당자 박근영 ☎ 440-486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꽃게철 맞아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반 가동
- 3.31. ~ 6.30. 인천시 주축 9개 기관,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 운영 -

인천시가 2023년도 봄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기간(4월1일 ~ 6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전조업 대책반을 가동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13일 해양수산부·해군2함대사령부·해양경찰서·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은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옹진군·군부대·해양경찰서·옹진수협 등과 협조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왔다.

올해도 봄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3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은 경비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우리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방지 △중국 어선의 나포 및 불법어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어선 피랍·피습 및 어업활동 보호 등 출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봄어기 연평어장의 어선안전조업은 어업인에 대한 지도 홍보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만큼 조업 어선의 안전관리 및 조업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 첨부 사진 >

	
<p>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협의회</p>	<p>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조업 사진</p>